

디젤 1ℓ 로 46km 주파 하이브리드는 “進化中”



GM '허머HX'



GM대우 '젠트라X'

'2008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



북미 최대의 모터쇼로 꼽히는 '2008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지난 13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모터쇼에는 현대·기아차 등 전 세계 7개국의 87개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참가하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열린다.

특히 올해는 미국 자동차 문화를 대표하는 '큰 차'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화두인 친환경·고효율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모터쇼에 출품된 많은 차량들이 기존 대형차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기술들을 앞다퉈 채택했기 때문이다.

◇고유가 시대 "기름 먹는 허마는 가라" =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모터쇼에서 어느 때보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체가 고유가의 여파로 소비침체의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대대적인 연비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이다.

GM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뜻하는 '이플렉스(E-Flex)'라는 개념을 도입해 기존 자동차들보다 50~100% 가량 연비를 향상시킨 다양한 차종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가솔린 15%와 에탄올 85%를 혼합한 대체연료(E85)를 사용하는 '허머HX' 컨셉트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모델은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 강민영(33)씨가 참여한 작품으로, 차량의 일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이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포드는 연비 개선을 위해 10년 넘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본 설계 시스템을 변경했다. 프레임 제작 등 기본 설계 방식을 바꿔 무게를 줄인 결

GM- 가솔린·에탄올 혼합 '허머 HX' 출시
포드- 익스플로러 변경... 30% 연비향상
현대차 - 북미시장 겨냥 '제네시스' 선보이
기아차 - 스포츠유틸리티 '보레고' 내놔
GM대우 - '젠트라X' '트랙스' 등 공개

과 최대 30%의 연비향상에 성공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크라이슬러는 '리튬이온배터리 디젤 하이브리드 구동장치'를 개발해 1ℓ의 디젤로 46.4km를 갈 수 있는 '지프 레니게이트' 컨셉트카를 출품했다. 컨셉트카 '에코보이저'는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며,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차 "우리도 있다" =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 가는 기대가 크다. 올해 초에 국내에서 발표한 야심작을 잇따라 미국에 내놓음으로써 북미시장 확장에 본격 뛰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세계 유명 모터쇼 가운데 가장 먼저 개최되는 만큼 올해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사전에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고급시장 전략차종인 '제네시스'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이 차량은 오는 6월부터 북미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어서 이번 모터쇼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또 컨셉트카인 '제네시스 쿠페(프로젝트명 BK)'와 함께 자체 개발한 배

기량 4.6ℓ의 V8 가솔린 엔진인 '타우' 엔진도 공개했다.

기아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를 북미지역 수출차명인 '보레고(Borrego)'라는 이름으로 출품했다. '보레고'는 올 여름부터 북미시장에서 닛산 '패스파인더', 포드 '익스플로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과 경쟁한다.

GM대우는 미국에서 각각 시보레 '아베오 세단' 및 '아베오 5'로 판매되는 '젠트라', '젠트라X'와 함께 '비트', '그루브', '트랙스' 등을 공개했다.

◇크로스오버도 강세 = 크로스오버 차량도 이번 모터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GM은 세단과 SUV의 경계를 무너뜨린 크로스오버 차량 '사브 9-4X 바이오과워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랜드로버는 3도어 콤팩트 SUV 'LRX'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BMW는 기존 'X5' 모델에 4도어 쿠페 스타일을 접목한 'SAC(Sports Activity Coupe)'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일본 업체인 도요타는 크로스오버 차량인 '벤자(VENZA)'를 전시했고 닛산은 미니밴 스타일의 콘셉트카 '포럼(FORUM)'을 공개했다.

랜드로버는 친환경 기술과 조경량 디자인이 특징인 3도어 소형 SUV 컨셉트카인 'LRX'를 최초 공개했고, 재규어는 전통적인 재규어 스타일에서 파격을 도모한 모델인 'XF'의 양산형 모델을 출품했다.

이밖에 아우디는 이번 모터쇼에서 수퍼카 'R8'의 디젤 모델인 'R8 V12 TDI' 컨셉트카를 처음 선보였다. 이 차량이 양산될 경우 최초의 '디젤 수퍼카'가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크로스오버(crossover) = 승차감이 뛰어난 세단의 장점과 파워풀한 성능이 뛰어난 SUV 강점을 결합한 차량.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현대차 '제네시스'



포드 '익스플로러'



기아차 '보레고'

CBS
광주 CBS TV

영·흥글 사토집는힐

TV강단 412번, 라이프 TV 광주 42번 40번, 나주 60번, 서남원 59번, 담양 42번

리빙포드 라이프 TV 서남원 59번

TV강단 412번

TV강단 42번

TV강단 40번

TV강단 60번

TV강단 412번

TV강단 42번